

‘自由’의 의미 확대

宋 敏

국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현대 국어 ‘자유(自由)’의 내면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 하나는 고래의 전통적인 의미로서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조건을 따지지 않는 자기 본위의 행동’이고, 다른 하나는 개화기에 새로 추가된 서구식 개념의 의미로서 ‘민주적, 법률적 권리로서의 자율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자유’는 중국의 고전에서 본래 ‘가치성이 없는 행동’을 뜻한 말이었다. 그러한 실례로서 鈴木修次(1981:138-140)는 후한 말 건안(建安, 196-219) 연간에 태어난 장편 민가(民歌) ‘초중경 처(焦仲卿妻)’의 첫머리 부분, 佐藤亨는 佐藤喜代治 편(1983, 語誌Ⅱ:212, ‘自由’)에서 『맹자(孟子)』, 『후한서(後漢書)』 등에 쓰인 ‘자유’를 인용하고 있다. 후대로 내려오면서 ‘자유’는 오히려 ‘느긋한 마음의 상태’처럼 ‘가치 있는 행위’로 의미가 전환되기도 하였다. 鈴木修次(1981:140-144)는 두보(杜甫, 712-770)의 시(詩), 북송대(北宋代)의 선(禪) 교과서인 『벽암록(碧巖錄)』¹⁾ 등에 그러한 의미로 해석되는 ‘자유’를

1) 북송 초기의 선승(禪僧) 설두 중현(雪竇重顯, 980-1052)이 『전등록(傳燈錄)』, 『운문광록(雲門廣錄)』, 『조주록(趙州錄)』과 같은 선록(禪錄) 중에서 고칙(古則) 또는 공안(公案)이라고 불리는 고인(古人)의 문답(問答) 백칙(百則)을 뽑아 ‘본칙(本則)’을 삼고, 그 하나 하나에 ‘송(頌)’을 달아 『설두송고(雪竇頌古)』를 편찬하였는데, 이

예시하고 있다. 말하자면 ‘자유’는 ‘가치성이 없는 행동’과 ‘가치성을 가진 행동’을 다 함께 나타내는 말이었다.

개화기를 거치는 동안 ‘자유’에는 다시 위와 같은 전통적 의미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의미가 추가되었다. 영어의 freedom이나 liberty와 같은 서구식 개념의 ‘자유’를 수용하기 위하여 고래의 한자어 ‘자유’를 전용한 결과였다. 이처럼 오늘날의 ‘자유’는 과거의 전통적 의미에 새로운 의미가 추가되면서, 의미의 확대를 겪은 결과로 해석된다.

동양 3국 가운데 서구식 개념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전통적 한자어인 ‘자유’를 freedom 또는 liberty의 번역어로 전용하기 시작한 것은 일본이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많은 논의가 있으나, 鈴木修次(1981:124-167) IV ‘宗教와 自由’, 進藤咲子(1981:32-63) 제2장 ‘自由, 小考’, 佐藤喜代治 편(1983, 語誌 II:212-217) ‘自由(佐藤亨 집필)’ 등에 그 윤곽이 거의 정리되어 있으며, 명치시대(1868-1912)에 간행된 각종 사전의 신생어와 번역어를 수집해 놓은 惣郷正明・飛田良文(1986)도 참고 자료가 된다. 여기서는 이들과 그 밖의 자료를 통하여 일본어의 ‘자유’에 새로운 의미가 추가되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히 정리하는 한편, 개화기의 자료를 통하여 국어에 나타나는 ‘자유’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의 경우, 서구식 ‘자유’의 개념을 막연하게나마 깨닫게 된 계기는 서양의 대역 사전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비롯된다. 실제로 각종 서양어 사전에 ‘자유’라는 대역어가 나타나는 시기는 18세기 말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증거로서 進藤咲子(1981:55)는 18세기 말엽부터 19세기 말엽에 이르는 동안 네덜란드어 Vrijheid, 영어 liberty와 freedom, 프랑스어 liberté 등에 ‘자유’라는 대역어가 나타나는 사전을 연차순으로 예시한 바 있다. 그밖에

책의 각칙(各則)에 북송 만기의 선승 환오 극근(圓悟 克勤, 1063-1135)이 다시 ‘수시(垂示), 착어(著語), 평창(評唱)’을 덧붙여 완성한 선(禪) 교과서가 바로 『벽암록(碧巖錄)』이다. 入矢義高(외) 역주(上 1992, 중 1994, 하 1996), 『碧巖錄』(上)(전 3책, 岩波文庫) 권두의 ‘解説’ 및 ‘解題’ 참조.

Satow(1876, 2판 1879), 尺辰八(1884), 棚橋一郎(1885), Hepburn(1886, 3판), 島田豊(1888) 등에도 freedom이나 liberty의 대역어 가운데에는 한결같이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자유’의 내면적 개념과 가치를 더욱 확실하게 이해하게 된 것은 서양을 직접 보고 돌아온 선각자들이 계몽서나 번역서를 통하여 서구식 ‘자유’의 개념과 가치를 거론하기 시작한 1860년대 후반부터였다.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5-1901)의 『서양사정』(西洋事情) 초판(1866)에는 ‘자주임의, 자유’라는 말에 대하여 “영어로는 ‘프리덤’ 또는 ‘리버티’라고 하나 아직 적당한 번역어가 없다(英語ニ之ヲ‘フリードム’又‘バリベルチト’云フ未タ的當ナ譯字アラス)”는 해설이 보이며, 『서양사정』(1870) 제2편(1870) ‘예언(例言)’에도 “리버티란 자유라는 뜻으로(リベルチトハ自由ト云フ義ニテ)”와 같은 설명이 나타난다. 후쿠자와의 『서양사정』은 간행과 동시에 널리 읽힌 책이므로, 이를 통하여 일반인도 ‘자유’라는 개념을 점차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여기에 이어 ‘자유’의 개념을 더욱 확산시킨 것은 나카무라 마사나오(中村正直, 1831-1891)의 번역서 『자유지리』(自由之理, 1871, 원서는 Mill, J. S.의 *On Liberty*)였다. 이렇게 하여 명치시대 초기인 1870년 초부터는 언론이나 학술 서적을 통하여 서구식 개념의 ‘자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났다.

鈴木修次(1981:150-158)에 의하면 명치시대의 ‘자유’론은 먼저 ‘출판의 자유’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되어 점차 ‘종교의 자유’로 옮겨갔다고 한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원인이 있었다. 1871년 11월 미국에 파견된 특명전권대사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 1825-1883) 사절단 일행은 조약개정의 교섭을 시작했으나 기독교를 금지하는 일본 정부의 방침이 커다란 장애로 떠올랐다. 이듬해인 1872년 12월, 유럽을 시찰하며 종교 사정을 알아보던 서본원사(西本願寺)의 승려 시마지 모쿠라이(島地默雷, 1838-1911)는 정부에 보낸 건백서에서 신교(信教)의 자유와 정교(政教) 분리를 제창하였다. 그제서야 일본 정부는 1873년 기독교를 묵인하기에 이르렀고, 1875년에는 드디어 신앙의 자

유를 인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일본어에 정착한 새로운 의미의 ‘자유’는 ‘自由貿易, 自由思想, 自由意思, 自由主義, 自由平等, 自由廢業, 自由行動’과 같은 복합어, ‘自由港’과 같은 파생어 형성에 널리 활용되었다.

중국의 경우, 미국인 선교사 브릿지맨(중국명 裨治文, 전출)은 『연방사략(聯邦史略)』(上海, 1857)에서 freedom 또는 liberty의 대역어로 ‘자주(自主), 자립(自立)’이라는 말을 썼다. 중국에서 간행된 후 일본에서 훈독이 베풀어진 형식으로 번각된 Williams/柳澤信大(1869)에도 free에는 ‘自主ノ, 自行, 釋放スル’, liberty에는 ‘自主, 不能任意’와 같은 풀이가 보일 뿐, ‘자유’는 나타나지 않는다.

Masini/黃河清(1993/1997:272)에는 1868년 워싱턴에서 체결된 ‘중미 조약’ 부록에 ‘자유’가 처음 쓰였다고 하나, 그것이 일본어의 영향인지 아닌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황준헌(黃遵憲, 1848-1905)의 저서 『일본잡사시』(日本雜事詩, 1879)에 나타나는 ‘자유’는 일본어에서 나온 것임이 분명하다. 초대 주일 공사단의 참찬(參贊)으로 1877년부터 1882년까지 5년 동안 일본에 머물렀던(張偉雄 1999) 그는 『일본잡사시』 외에도 『일본국지』(日本國志, 1890)와 같은 저서를 통하여 적지 않은 일본식 신생 한자어를 그대로 중국어에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된 서구식 개념의 ‘자유’는 양계초(梁啓超, 1873-1929)의 『변법통의』(變法通議, 1896), 강유위(康有爲, 1858-1927)의 『일본변정고』(日本變政考, 1898), 엄복(嚴復, 1853-1921)의 번역서 『천연론』(天演論, 1898, 원서는 Huxley, T. H.의 *Evolution of Ethics*)과 같은 선각자들의 저술을 통하여 중국어에 차용되었다. 많은 영문 학술서를 번역하면서도 일본식 번역어를 거의 따르지 않았던 엄복도 ‘자유’만은 일본어형을 그대로 빌려 썼다(鈴木修次 1981:164). 이에 劉正琰(외) 편(1984:410)에서는 ‘자유’를 ‘일본어에서 돌아온 차사(日語的回歸借詞)’, Lydia H. Liu(1995:317)에서는 ‘일본에서 돌아와 중국에 확산된 말(became widespread in China via

round-trip diffusion from Japan)’이라고 보았다.

국어의 경우, 새로운 개념의 ‘자유’가 나타나는 것은 1890년대로 들어서면서부터인 듯하다. 유길준(兪吉濬)의 『서유견문』(西遊見聞, 1895)에는 ‘自由’가 수십 차례 쓰이고 있는데(이한섭(외)편 2000), 그것이 단독 또는 공용형과 같은 명사로 되어 있어 새로운 개념을 뜻하는 단어였음을 보여준다. 이때의 ‘자유’는 일본어를 직접 옮겨 온 것이다(李漢燮 1985). 그러나 이렇게 시작된 ‘자유’가 곧바로 국어에 정착한 것은 아닌 듯하다. 그후에도 한동안 ‘자유’가 단독 명사로 쓰인 경우는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독립신문』(1896-1899)에 나타나는 ‘자유권’이란 파생어나(朴英燮 1994), 『한영조언』(1897)에 나타나는 ‘자유(自由)하다’와 같은 동사형, ‘자유당(自由黨), 자유지권(自由之權)’과 같은 파생어가 그러한 사실을 전해 준다. 그런데 『한영조언』에서는 ‘자유당’에 ‘See 민권당, 하의당’처럼 동의어를 표시하고 있어, ‘자유당’에 포함된 ‘자유’의 의미만은 새로운 것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나, 당시에 그것이 단독 명사로 쓰이기에는 아직 이르지 않았나 생각된다. 『한영조언』에 ‘자유하다’라는 동사형만 올라 있을 뿐, ‘자유’라는 명사형이 올라 있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듯하다.

이러한 상황은 20세기에 들어서서도 한동안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령, 통감부(統監府) 시대(1905-1910)에 서울에서 간행된 『獨習日語正則』(李雲復, 1907)의 국어 대역문에는 ‘自由港’이란 파생어가 한번 나타날 뿐, 명사로서의 용례는 보이지 않는다. 일본어 문장에는 ‘自由’가 가끔 서술어나 부사의 구성 요소로 이용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국어 대역문에서는 ‘自由’가 ‘任意’로, ‘不自由’가 ‘不便’으로 옮겨져 있다. 예를 들어 ‘自由デス/임의롭소(97상단), 自由ニ/任意로(33하단-34상단), 自由ニ ナリマセン/임의롭지 안소(221상단), 不自由デス/不便호(221하단)’와 같은 용례가 그렇다. 이 때의 ‘自由’는 현대 국어 같으면 그대로 쓰일 수 있는 것들이다. 이로써 ‘자유’라는 신생 한자어는 통감부(統監府) 시대까지도 단독 명사로 쓰이기는 부자연스러운 단어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일본어 ‘自由港’이 국어에도 그대로 쓰

인 것은 파생어여서 쉽게 차용된 결과일 것이다.

결국, 새로운 의미의 '자유'가 국어에 정착한 시기는 생각보다 늦은 듯하다. 조선총독부의 『조선어사전』(1920)에는 '自由(즈유)'가 '사람의 구속을 받지 않는 것(人の拘束を受けざること)'처럼 올라 있다. 의미 기술이 간략하기는 하나, 그것이 명사형이라는 점은 새로운 의미로 쓰일 수 있는 신생 한자어였음을 뜻할 것이다. 그것은 전통적 의미로만 쓰이던 '자유'에 새로운 의미가 추가되어 의미의 확대가 이루어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문세영의 『조선어사전』(1937)에는 '자유(自由)'가 '㉠자기가 임의대로 행동할 것을 정하는 것 ㉡남의 구속을 받지 아니하는 것 ㉢제 마음대로 하는 것 ㉣몸에 아무것도 걸리는 것이 없는 것 ㉤法법률의 범위 안에서 마음대로 하는 행동'과 같은 풀이로 올라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에는 '법률'이라는 전문어 표시도 붙어 있다. 그 밖에도 '자유'와 결합된 복합어, 파생어가 표제어로 많이 올라 있어 '자유'가 국어 단어로서 자리를 확고하게 잡았음을 보여준다.

요컨대, 국어나 중국어는 모두 '자유'의 새로운 의미를 일본어에서 차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참 고 문 헌

*전번 호까지 이미 제시한 문헌은 생략함.

李漢燮(1985). 『西遊見聞』의漢字語について—日本から入った語を中心に—.

『國語學』(일본) 141.

이한섭(외) 편(2000). 『西遊見聞 [語彙索引]』. 도서출판 박이정.

張偉雄(1999). 『文人外交官の明治日本—中國初代駐日公使團の異文化體驗—』.

동경: 柏書房.